

# 총괄평가의 개념과 방법, 그리고 가상 사례 적용

박창희\*

## ❖ 요약 ❖

이 글은 국가안보 및 국방을 기획하는데 필요한 ‘총괄평가(net assessment)’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가상 사례에 적용해 본다. 즉, 총괄평가의 개념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총괄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방법에 따라 미래에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 사례를 샘플로 한국과 주변국 간의 군사력 균형을 시험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총괄평가는 상대와의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 균형(military balance)을 비교하는 것이다. 피아 군사력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상대국에 비해 어떠한 위치에서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우리가 유리하다면 무엇이 강점이고 상대의 약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불리하다면 무엇이 약점이고 상대의 강점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럼으로써 피아 ‘전략적 비대칭성(strategic asymmetries)’을 발견하고 우리의 강점을 이용하여 적의 약점을 공략하는 ‘경쟁

전략(competitive strategy)’을 발전시킬 수 있다. 즉, 총괄평가는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문제를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아직 총괄평가라는 용어의 의미와 기법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력 균형을 어떻게 평가하여 국방기획과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욱 모르고 있다. 그러나 총괄평가는 우리의 안보와 국방을 기획하는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논리적 사고의 과정이다. 우리는 막연하게 미래에 주변국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협이 문제인지, 왜 그러한지, 특정한 분쟁 상황에서 우리가 우세한지 열세한지, 만일 열세하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국방기획에 논리가 설 수 있다. 총괄평가는 향후 우리 군의 전략기획 및 전력기획의 도약적이고 혁신적인 발전, 나아가 효율적인 국방을 기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사고를 제공할 수 있다.

**핵심어:** 총괄평가, 군사력 균형, 강약점, 전략적 비대칭성, 경쟁전략, 전략적 사고

## I. 서론

이 글은 미국에서 국가안보 및 국방을 기획하는데 전략적 사고를 제공해 온 ‘총괄평가(net assessment)’—또는 ‘순(純)평가’—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사례에 적용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즉, 총괄평가의 개념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총괄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방법에 따라 미래에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 사례를 샘플로 한국과 주변국 간의 군사력 균형을 시험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아직 생소한 총괄평가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총괄평가를 논하는가? 총괄평가란 경쟁국과의 ‘군사력 균형(military balance)’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전쟁과 전략의 문제를 논할 때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중요성을 강조하듯이 우리는 적의 능력과 우리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여 피아 간의 강약점을 식별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취약한 분야의 군사력을 보완하여 균형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하며, 우리가 가진 강점으로 적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평시에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쟁이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희생으로 승리하는데 필요한 과업이다. 이렇게 본다면 총괄평가는 평시에 효율적으로 전력을 기획하고 전시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전략을 입안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총괄평가는 현대 문명인들이 만든 독창적인 기법이 아니다. 미국만의 전유물도 아니다. 이미 2500여 년 전에 손자는 그의 병서인 『손자병법(孫子兵法)』에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적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여러 영역에서 우열을 비교해 보아야 하며, 이를 통해 드러난 우리의 강점과 적의 약점을 이용하여 ‘세(勢)’를 발휘해야 ‘온전한 승리(全勝)’, 즉 최소한의 피해로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2400여 년 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될 무렵 아테네의 페리클레스와 스파르타의 아르키다무스도 서로의 강약점을 분석하여 전쟁의 승패를 예측한 바 있다(Roche and Mahnken 2020, 12-14). 이처럼 피아 전력을 평가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책임있는 지도자라면 전쟁에 대비하여 피아 군사력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다만, 이전까지 군사력 균형 평가는 대부분 지도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머물렀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법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총괄평가는 냉전이 심화된 1970년대에 이르러 미국의 노력에 의해 국가안보 및 국방을 기획하는 토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미국은 소련과의 장기적 냉전체제 하에서 전략경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20~3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미소 간의 군사력 균형을 평가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그리고 1973년 10월 국방장관 직속으로 ‘총괄평가국(ONA: Office of Net Assessment)’을 설치하여 보다 창의적 접근법으로 국방의 문제를 식별하고 경쟁국과의 군사력을 비교 및 평가함으로써 강대국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고자 했다. 지금까지 소련과의 긴 냉전에서 승리한 것이나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을 주도하여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최근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반접근 및 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의 위협성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개념을 제시한 것은 총괄평가를 통해 얻은 주요한 산물이다(김태현 2020, 194).

우리는 아직 총괄평가라는 용어의 의미와 기법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무기효과지수(WEI: weighted effectiveness indices)와 부대가중치(WUV: weighted unit value)를 적용하여 개별 무기체계 및 부대 전투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진정한’ 군사력을 비교하는 총괄평가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총괄평가는 우리의 안보와 국방을 기획하는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논리적 사고의 과정이다. 우리는 막연하게 미래에 주변국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협이 문제인지, 왜 그러한지, 특정한 분쟁 상황에서 우리가 우세한지 열세한지, 만일 열세하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국방기획에 논리가 설 수 있다. 총괄평가는 향후 우리 군의 전략기획 및 전력기획의 도약적이고 혁신적인 발전, 나아가 효율적인 국방을 기획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략적 사고의 과정이 아닐 수 없다.

## II. 총괄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 1. 총괄평가의 개념

총괄평가는 경쟁국과의 ‘군사력 균형(military balance)’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

의된다(Marshall 2009, 1; Cohen 2018; Elefteriu 2018, 7). 학자들에 따라 “군사, 기술, 정치, 경제, 그리고 기타 요소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나 “피아 강약점에 대한 균형을 평가”하는 것, 나아가 더 포괄적으로 “국가안보 기관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Pickett, et al. 1991, 177;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1990, 8; Rosen 1991, 290). 그러나 여기에서 ‘군사력’이란 용어는 말 그대로 순수한 군사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총괄평가를 ‘군사력 균형 평가’로 정의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 미 국방부 지침에도 총괄평가국은 “현재 및 미래의 미국과 외국의 군사적 능력을 전역, 지역, 영역, 기능, 임무별로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DoD Directive 2020, 4).

총괄평가는 영어의 ‘net assessment’를 번역한 것으로 원래는 ‘순(純) 평가’라는 의미이다. 경제학에서 ‘순 이익’이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순수이익을 의미하는 것처럼, ‘net assessment’란 피아 군사력 비교를 통해 나타난 상대방의 군사력에 대한 우리 군사력의 유리함 혹은 불리함의 정도를 말한다. 다만, 군사력 균형을 평가하는 것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력·무기·부대와 같은 물리적 군사력뿐만 아니라, 교리·훈련 등의 비 물리적 군사력, 그리고 심지어 군사적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전략문화·정치리더십과 같은 비군사적 영역을 모두 포함하며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순 평가’보다는 ‘총괄평가’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본다(김태현 2020, 184; Bracken 2006, 93).

총괄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목적, 시점, 대상, 수준, 관점, 그리고 기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총괄평가의 목적은 상대와의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식별하는데 있다. 피아 군사력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상대국에 비해 어떠한 위치에서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우리가 유리하다면 무엇이 강점이고 상대의 약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불리하다면 무엇이 약점이고 상대의 강점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럼으로써 피아 ‘전략적 비대칭성(strategic asymmetries)’을 발견하고 우리의 강점을 이용하여 적의 약점을 공략하는 ‘경쟁전략(competitive strategy)’을 발전시킬 수 있다(Manea 2014). 즉, 총괄평가의 목적은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문제를 찾고 전략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둘째로 총괄평가의 시점은 기본적으로 장기적 미래, 즉 약 20-30년 후를 상정한다 (Elefteriu 2018, 20). 총괄평가는 단기적 현안을 해결하기보다는 장기적 ‘전략경영’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당장 일선 지휘관들이 직면한 문제를 다루기보다 국가 및 군 지도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위협, 또는 현존하는 위협 가운데 향후 심각하게 악화될 위협을 식별하여 사전에 경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피아가 과거 수십 년 간 추구해 온 군사력 증강 추이를 분석하고 적의 의도와 능력을 식별해야 하며, 현재 드러난 균형을 토대로 미래의 군사력 균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해야 한다.

셋째로 총괄평가의 대상은 단순히 물리적 군사력에 한정되지 않는다. 흔히 군사력 비교는 병력·무기·부대 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미 ONA를 42년간 이끌었던 마샬(Andrew W. Marshall)이 지적한 것처럼 병력이나 무기, 부대의 수를 가지고 군사력을 비교하는 것은 ‘진정한 전투력’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앤드루 크레피네비치 2019, 121). 진정한 전투력은 겉으로 드러난 군사력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비 물리적 군사력과 군사적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비군사 영역이 될 수 있다. 즉, 총괄평가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현재 드러난 피아 불균형성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가 가진 경쟁력이 무엇이고 어떻게 강화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아직 예측하지 못한 미래의 불확실성이 무엇인지 등을 판단한다.

〈표 1〉 총괄평가에서 군사력 균형 분석 대상

구분	분석 대상
물리적 군사력	병력 수, 무기 수, 부대 수
비 물리적 군사력	교리, 전략, 교육, 훈련, 사기, 군수, 전력기획 및 획득 절차, 국방예산, 군사리더십
비군사적 요소	정치적 목적, 지원, 지리, 문화, 기술, 기후, 정치리더십, 정책결정과정, 전시 스트레스

넷째로 총괄평가는 국가, 전역, 전투, 그리고 기능별로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총괄평가는 국가들 간의 전략적 경쟁상황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

으로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냉전기 미국은 소련을 근경에 빠뜨릴 전략적 목적으로 총괄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소련의 군비경쟁을 강요하여 장기적으로 소련 경제를 압박하고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총괄평가는 하위 수준에서도 동시에 진행된다. 가령 전역수준에서 미국이 1980년대 전략방위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을 추진함으로써 소련으로 하여금 미사일방어망을 돌파하기 위해 더 많은 ICBM 전력을 배치하도록 강요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 그 예이다. 또한 총괄평가는 기능별로도 수행될 수 있다. 피아 미사일 공격과 미사일 방어, 폭격기 전력과 방공 능력, C4ISR 체계에 대한 공격 및 방어 능력 등을 비교하여 군사력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

다섯째, 총괄평가는 우리의 관점이 아닌 적의 관점에서 군사력 균형을 진단한다. 비록 우리는 군사력 균형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적은 우리와 다른 시각에서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적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적의 입장에서는 도발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 따라서 총괄평가는 우리가 보는 피아 강약점보다 적이 스스로 인식하는 강약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연구를 통해 적이 갖고 있는 군사사상, 작전개념, 전쟁 및 분쟁에 대한 인식 등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적이 전략을 기획하는데 어떠한 가정을 설정하는지, 어떠한 분석방법을 사용하는지, 군사적 상호작용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리고 군사력 균형을 평가하기 위해 주로 어떤 시나리오를 작성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Elefteriu 2018, 29).

여섯째, 총괄평가의 기능은 ‘처방’이 아닌 ‘진단’에 있다(Augier 2013, 12). 총괄평가는 ‘해야 할 것’이 아닌 ‘생각해야 할 것’을 제시한다. 물론, 군사력 균형을 평가하고 드러난 강약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전략적 옵션을 제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총괄평가는 말 그대로 ‘평가’를 제공할 뿐 정책이나 대안을 선정하는 것은 정책결정자들의 몫이다. 즉, 총괄평가는 효과적인 전략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방기획에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본다면 총괄평가는 적과의 경쟁 속에서 미래에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과거 추세와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피아 군사력을 비교하고 미래 군사력 균형을 예측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피아 강약점, 즉 ‘전략적 비대칭성’을 찾고 대비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2. 총괄평가의 필요성

그렇다면 총괄평가는 왜 필요한가? 총괄평가는 다음과 같이 국가안보 및 국방을 기획하는데 유용하다. 첫째, 국방과 관련한 올바른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은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올바른 문제 의식이 없이는 합당한 대안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적이 미사일 공격을 가할 경우 우리가 입게 될 피해 범위와 파괴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보다는 피아 미사일 전력의 균형이 과거와 현재는 어떠했고 미래에 어떠한 추세로 변화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만일 미래에 적이 미사일 전력에서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면 왜 그러한지, 적의 우세가 우리의 억제전략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적의 미사일 우세를 상쇄하고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둘째, 총괄평가는 기존의 가정이 타당한지를 검토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할 수 있다. 가정은 논리적·경험적으로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고 추론한 믿음이다. 모든 기획과 계획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잘못된 가정은 정책과 전략에 차질을 가져오고 심한 경우 실패로 귀결된다. 총괄평가는 여러 경로를 통해 가정을 검토함으로써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잘 못 보는 것은 무엇인지, 아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해 준다. 예를 들어, 항공우세에 관한 가정을 보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면 항공우세를 보장할 수 있는지, 항공우세를 확보하면 조기에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항공우세 전력을 확보하면 적의 전쟁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실제로 적의 항공력과 방공능력, 그리고 적의 전쟁의지 등과 연계하여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럼으로써 스텔스 전투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 유용성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기획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셋째, 적의 의도와 강약점을 이용한 효율적인 국방기획이 가능하다. 먼저 총괄평가는 적의 물리적 군사력 증강 추세와 교리 등을 통해 적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예를 들어, 주변국이 전력을 개편하여 통합성·합동성·기동성을 강화하고, 각 부대가 책임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교리를 채택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총괄평가는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변국이

주권, 영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공세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의지와 군사력을 우리와 비교하여 주변국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나아가 주변국이 갖고 있는 강약점과 우리가 갖고 있는 강약점을 파악하여 주변국의 도발에 대비한 전략과 전력을 기획할 수 있다.

이 때 국방기획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상대의 ‘압박점(points of pressure)’이다. 압박점이란 적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치명적인 약점 또는 이슈로서 상대의 군사력을 상쇄 또는 압도하기 위해 공략하거나 투자해야 하는 곳이다(Elefteriu 2018, 25). 새로운 군사기술, 작전개념, 정치-전략적 방책 등을 통해 이곳을 압박할 경우 전반적인 군사력 균형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전기 미국은 소련이 1945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 핵전력보다 방공전력에 투자한 돈이 더 많은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핵무장이 가능하고 소련 방공망을 돌파할 수 있는 B-1 폭격기를 개발하여 소련으로 하여금 엄청난 돈을 들여 11시간대에 이르는 광활한 국토에 지역 방공망을 추가로 구축하도록 했다(Murray and Watts 1990, 167).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소련에 핵위협을 가하면서 적의 취약점인 경제적 출혈을 강요한 것이다.

넷째, 총괄평가는 고위급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략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총괄평가는 현안이 아닌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다룬다. 정량적·정성적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학문적 노력이 결집되어 관료들이 보기 어려운 새로운 시각에서의 전략적 혜안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총괄평가는 비록 특정한 전략을 제안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전략적 옵션들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전략이 어떠한 것인지 말해줄 수 있다.

### Ⅲ. 총괄평가 방법

총괄평가를 위한 정형화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총괄평가가 국가 수준으로부터 전역 및 기술적 수준에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대상이 무기로부터 교리, 전략문화 등 측정이 가능한 영역으로부터 불가능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평가의 목적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거시적으로 볼 때 총괄평가는 ‘방법론들의 방법론’이다. 총괄평가는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모두 포괄하며 특정한 방법론을 고집하지 않는다. 하위의 수준에서 체계분석(system analysis),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 워 게임(war game)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다만, 총괄평가가 국가안보 영역에서의 고위급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잡한 분석 과정이라고 한다면, 수학적·통계적 방법에 의한 정량평가보다는 논리적 추론에 의한 정성적 평가가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피아 미사일 전력을 비교한다고 가정하자. 미사일의 파괴력을 예측하고 전력의 우열을 가린다면 체계분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총괄평가는 이러한 미사일이 전력을 바탕으로 피아 요격능력, 방호능력, 군수지원 능력, 운용교리, 적의 의도, 피아 전략, 선제타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군사력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피아 전략적 비대칭성을 식별한다. 즉, 정량평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분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괄평가의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으나, 총괄평가의 최종 산물은 어디까지나 정성적 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다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1990, 8-9).

총괄평가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핵심적인 평가요소와 절차는 상당히 유사하다. 총괄평가를 실제로 담당하거나 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마샬은 총괄평가의 과정을 네 단계로 제시했다. 먼저 피아가 추구하는 목표와 군사력 변화 추세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 추세 및 비대칭성을 식별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반영된 데이터와 인식에 오류가 있음을 감안하여 미래 나타날 전략적 취약성과 기회요인을 식별한다(Marshall 1966, 14). 크레피네비치는 우선 기본평가로 현재의 추세를 분석하여 미국이 경쟁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향후 그러한 위치가 개선될 것인지를 개관한다. 그리고 경쟁에서 나타나는 상호 비대칭성을 목표, 교리, 군 구조, 군사태세, 동맹, 군수, 군현대화 노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규명한다. 그런 다음 경쟁에 영향을 줄 미래의 불확실성을 식별하고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영역과 기회요인을 도출한다(Watts 2017, 131-132).

코언은 보다 큰 틀에서 정치적 요인, 즉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와 동맹국 및 중립국 등의 동향을 우선 평가한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에 피아 물리적 군사력이 어떠한 추세로 변화할 것인지, 피아 작전개념이 무엇이고 작전수행이 어떠

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피아 군사력 균형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성을 식별한 다음, 피아 강약점을 시나리오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Cohen 1988, 85). 마지막으로 스카이펙은 총괄평가의 네 가지 축으로 추세분석, 교리분석, 비대칭성 규명, 시나리오 분석을 들고 있는데 코언의 방법과 유사하다 (Skypek 2010, 7-8).

〈그림 1〉 총괄평가 방법에 관한 주요 논의

<p style="text-align: center;">〈앤드류 마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본 평가</li> <li>② 장기추세 및 주요 비대칭성</li> <li>③ 주요 불확실성</li> <li>④ 미래 전략적 취약성 또는 기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앤드류 크레피네비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본 평가 - 개관</li> <li>② 피아 경쟁의 주요 비대칭성 식별</li> <li>③ 주요 불확실성 식별 및 토의</li> <li>④ 미래 문제영역과 기회요인 도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엘리엇 코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치적 요인</li> <li>② 추세 분석</li> <li>③ 작전 개념</li> <li>④ 비대칭성 규명</li> <li>⑤ 시나리오 분석</li> </ul>	<p style="text-align: center;">〈토머스 스카이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추세분석</li> <li>② 교리분석</li> <li>③ 비대칭성 규명</li> <li>④ 시나리오 분석</li> </ul>

이렇게 볼 때 총괄평가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피아 군사력을 비교한 다음 비대칭성을 식별하고, 이를 시나리오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① 유형적 군사력 비교, ② 무형적 군사력 비교, ③ 전략적 비대칭성 규명, 그리고 ④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네 단계의 절차를 총괄평가를 위한 하나의 표준 모델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유형적 군사력 비교는 장기적 관점에서 병력, 무기, 부대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과거 20~30년 간에 걸친 피아 무기체계 획득, 군 구조 변화, 국방비 지출, 경제적 및 기술적 능력에 있어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향후 20~30년 동안 군사력 균형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는 것이다. 군사력의 양적 능력에 있어서 ‘연간 변화’는 점진적이지만 ‘축적된 변화’는 혁명적일 수 있으며, 그것이 국가목표와 정책, 교리, 전략의 변화와 동반될 경우 더욱 충격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1990, 32). 가령 현재 A국가는 신형 전투기를 도입했으나 예산의 제약 혹은 기술 제한으로 인해 정밀유도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경제가 호전되고 기술개선이 이루어져 충분한 탄약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밀유도탄을 갖지 못한 주변국에게는 제공권 장악 측면에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물리적 군사력을 비교하는 것은 미래의 군사력 균형을 예측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로 무형적 군사력 비교는 교리, 전략, 교육, 훈련, 사기, 군수, 전력기획 및 획득 절차, 국방예산, 군사리더십 등을 비교하는 것이다. 1940년 독일의 프랑스 공격 사례가 보여주듯이 군사력 균형은 단순히 사단, 전차, 전투기, 잠수함 등의 수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례에서 물리적 군사력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군사력 균형은 달라질 수 있다. 모든 국가들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싸우지 않으며, 훈련 수준에 따라 전투력을 발휘하는 능력도 다르다. 전쟁의 규모가 크고 기간이 늘어날수록 군수지원 능력에 따라 군사력 균형이 뒤바뀔 수 있다. 때로는 병사들의 사기와 지휘관의 리더십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만, 비물리적 군사력을 모두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총괄평가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할 경우 모든 요소들을 두루 고려해야 하겠지만, 평가하려는 수준이 지역적 혹은 기능적으로 제한될 경우에는 핵심적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로 전략적 비대칭성 규명은 앞의 유형적·무형적 군사력 비교를 통해 드러난 강약점을 바탕으로 상호 '비대칭성 또는 비교우위의 영역'을 식별하는 것이다. 미래에 A국가가 신형 전투기와 정밀유도탄을 확보할 경우 항공력에서 주변의 B국가를 압도할 것이다. 다만 B국가는 방공력을 강화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다. A국가는 공세적 교리를 가지고 초전에 압도적인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반면, B국가는 방어적 교리로 초전 생존성을 모색하는데 주안을 둘 수 있다. 이처럼 비대칭성은 A국가와 B국가가 서로를 인식하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두 국가는 각 분야별로 식별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을 도출하고 부대구조를 조정할 것이다. 다만, 군사력 균형은 각 분야별이 아닌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부족한 화력을 화력으로 메우기보다 기동으로 보완할 수 있고, 교리를 바꾸어 적응력을 거부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 두 국가의 전략기획과 전력기획은 이러한

비대칭성 인식에서 비롯된다.

넷째로 시나리오 분석은 군사력 균형이 예상대로 변화할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해 기존의 가설, 혹은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 때 시나리오 분석은 기본적으로 아국과 적국의 정치-군사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두 팀을 설정하고, 이들이 포럼의 형태로 전략게임(strategic game)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나, 시나리오에 따라 체계분석이나 위게임 등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앞서 분석한 전략적 비대칭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전체 군사력 균형의 우열로 나타날 것인지를 주요 가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따져보게 된다. 가령 A국가의 우세한 항공력이 B국가의 방공력을 극복하고 제공권을 장악할 것인지, A국가의 우세한 기동력이 B국가의 화력을 제압하고 전격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를 분석한다.

이와 같이 총괄평가가 이루어지면 군사력 비교 과정에서 예상한 전략적 비대칭성을 확증할 수 있고 미래 양국의 군사력 균형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적국의 위협에 대한 전략을 입안하고 소요되는 전력을 기획할 수 있다. 나아가 동맹체계의 발전이나 국제관계에서의 외교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 IV. 사례 적용: 한반도 주변 해역 국지분쟁

총괄평가는 국가안보 및 국방 수준으로부터 전역, 전투, 기술 수준으로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총괄평가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샘플로 제시하는 만큼 가급적 ‘단순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절차를 ‘간략화’하여 보도록 한다. 적용 사례는 약 20년 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국지분쟁으로 주변의 불특정 국가인 X국이 한반도 주변 도서를 점령하기 위해 분쟁을 도발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한다.

### 1. 분쟁 상황 설정

한국과 X국가 간 분쟁의 원인은 해양 중간선 획정 및 도서 영유권 분쟁에 있다.

한국과 X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이 중첩되는 해양의 중간선을 획정하는 문제로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으며, 양국 간 중첩된 방공식별구역에서 공군기가 빈번하게 대치하며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X국은 한국이 분쟁도서에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반발하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X국은 무력을 사용하여 도서 영유권을 확보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전격적인 군사행동으로 분쟁 중인 도서를 강제로 탈취하여 영유권을 기정사실화하고, 한국정부에 X국이 주장하는 중간선을 획정하도록 강요하려는 것이다.

X국이 추구하는 군사목표는 제3국이 개입하기 전에 신속하고 결정적인 군사행동으로 도서를 점령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한국 해군 함정을 격파하고 한국이 설치한 도서의 구조물을 파괴할 것이며, 도서에 병력을 투입하여 X국 국기를 게양할 것이다. 이후 X국 정부는 정치적 협상에 나서 한국정부로 하여금 자국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X국의 군사도발은 제한적일 것이다. X국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은 해당 도서에 대한 영유권 확보하고 상대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인 만큼, X국은 전면적인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즉, X국은 한국 해군을 격파하고 도서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전력을 투입할 것이다. X국이 도발할 경우 미국은 비록 주한미군 전력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록 이러한 분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소규모 분쟁에 개입하여 X국과의 외교적·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입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X국은 해군의 수상전력을 중심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공군은 제공권을 장악하여 해군작전을 지원할 것이며, 해군의 항모, 잠수함, 순양함 등 주요 세력과 미사일 전력은 작전에 참여하지 않은 채 백업전력으로 무력을 시위함으로써 한국군의 대응을 위축시키고 확전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즉, X국 및 한국 간 군사분쟁은 소규모 해상교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2. 피아 유형적 군사력 비교

### 1) C4ISR, 사이버전, 전자전 능력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C4ISR: command, control, communi-

cation, compute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능력은 정보화된 전쟁, 그리고 미래 지능화된 전쟁에서 작전의 효율성과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휘통제가 마비되고 정찰감시 자산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와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들은 사이버전 및 전자전을 통해 자국의 C4ISR 체계를 방어하고 적의 C4ISR 체계를 공격하여 정보우세를 달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C4I 능력은 X국과 한국 모두 정보화된 전략 및 전술지휘통제체계를 구비하여 대등할 것이다. ISR 능력에 있어서는 X국이 한국에 비해 절대적으로는 우세하지만, 분쟁 해역에 대한 제한된 범위의 정찰감시 능력에 있어서는 대등할 것이다. X국은 우주영역, 지해공 영역에서 광범위한 ISR 자산을 보유할 것이다. 특히 한국보다 많은 군사위성을 운용하여 감시 및 정찰 능력에서 앞설 것이며, 지상배치 레이더와 해군함정,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분쟁해역을 감시하고 정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비록 20여 기의 군사위성을 운용하여 X국보다 우주 ISR 능력이 열세하지만, 지상배치 레이더와 해군함정, 공군의 피스아이 조기경보통제기, 다양한 정찰 드론을 운용하여 적어도 분쟁해역에 대해서는 실시간 감시정찰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능력을 갖고 있다. 결국 해상분쟁 시 한국은 X국과 대등한 수준의 C4I 및 ISR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이버전 능력은 X국이 한국을 능가할 것이다. X국은 컴퓨터 바이러스, 웜, 논리폭탄 등으로 한국군의 C4ISR 체계를 마비시키고 ‘백도어(back door)’로 침투하여 웹서버와 운영체계를 공격하거나 자료를 탈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군은 사이버긴급대응팀(CERT: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를 운영하여 네트워크를 방어하고 있으나, X국의 C4ISR체계를 공격할 능력은 크게 열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자전 능력도 마찬가지로 X국이 한국을 크게 능가할 것이다. X국은 재밍 및 스푸핑 능력, 고출력마이크로파무기(HPM: high power microwave), 전자자기파무기(EMP: electromagnetic pulse) 등을 보유하여 한국군의 C4ISR체계를 공격할 수 있다. 해상에서는 전자전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탑재된 전자전 체계를 활용하여 전자방어 및 전자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군은 제한된 수준의 전자방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X국에 대한 전자공격 능력은

거의 갖지 못할 것이다. 한국은 향후 전자전 능력을 보강하더라도 X국의 집중 공격에는 취약할 것이다.

## 2) 해군 수상함의 대공 및 대함전력

X국과 한국이 보유한 해군전력 모두를 비교할 필요는 없다. X국은 제한된 도서분쟁 상황에서 분쟁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 수상함 전력을 중심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가정하는 만큼, 여기에서는 수상함의 전력을 비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X국 함정으로 구축함 XDD-III와 호위함 XDD-II를 가정하여 한국이 보유한 구축함 KDD-II 및 호위함 KDD-I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상 필자는 XDD-III 구축함을 중국의 뤼양-III, XDD-II 호위함을 중국의 장카이-II 함정과 유사한 능력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먼저 X국과 한국 해군의 주력인 구축함의 무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0년 후 X국과 한국은 보다 개량된 함정을 가질 것이나, 현재 함정의 전력 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가정한다.

〈표 2〉 X국과 한국 해군 함정 능력 비교

구분		X국	한국	전력비
구축함	대공	32셀 VLS에 HHQ-9B SAM 24셀 GMLS에 HHQ-10 SAM H/PJ-11 CIWS 1대	32셀 VLS에 SM-2 SAM 21셀 GMLS에 RAM SAM 콜키퍼 CIWS 1대	대등
	대함	32셀 VLS에 YJ-18A AShM 130mm 함포	2대의 4튜브 하푼 AShM 127mm 함포	4:1
호위함	대공	32셀 VLS에 HHQ-16 SAM H/PJ-11 CIWS 1대	16셀 VLS에 시스패로 SAM 콜키퍼 CIWS 2대	4:3
	대함	2대의 4튜브 YJ-83 AShM 76mm 함포	2대의 4튜브 하푼 AShM 127mm 함포	대등

\* XDD-III는 뤼양-III급, XDD-II는 장카이-II급과 동급 제원으로 가정

\* 대잠무기 제외

\* IISS, *The Military Balance 2020* (London: Routledge, 2020), pp. 262, 288.

X국과 한국의 구축함 한척이 한 번에 발사할 수 있는 화력을 비교하면, 먼저 대공화력으로 X국의 32셀 수직발사체계(VLS: vertical launch system)는 HHQ-9B를 장착하여 한국의 32셀 VSL에 탑재된 SM-2 SAM과 각각 32발로 대등하다. 또한 X국의 GMLS에 탑재된 24셀의 SAM은 한국의 SAM 21발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대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함무기의 경우 X국은 YJ-18A를 32발 탑재하여 한국의 하푼 8발에 비해 네 배 많다. 즉, 대함전력에서는 X국 구축함이 한국 구축함보다 4:1로 우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호위함의 경우 장거리 대공화력은 X국이 32발의 HHQ-16 SAM을 보유한 반면 한국은 16발의 시스패로 SAM을 탑재하고 있으므로 X국이 두 배 우세하다. 다만 단거리 대공화력인 근접방어시스템(CIWS: close-in weapon system)은 한국 호위함이 두 배 우세하다. 장거리 체계가 단거리 체계보다 화력이 두 배인 것으로 가정하면 X국의 방공체계가 4:3으로 우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호위함에 탑재된 대함무기의 경우 X국과 한국의 전력은 대등하다.

### 3. 무형적 군사력 비교: 해상작전 수행 개념

#### 1) X국 해군의 해상작전 수행 개념

X국 해군의 작전목표는 분쟁해역에서 해양우세를 달성하여 상대국 해군을 고립시키고 유리한 작전여건을 조성한 후, 결정적인 작전으로 상대국 해군을 격파하는 것이 될 것이다. X국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은 해당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만큼 전면적인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분쟁지역에서 압도적인 군사적 우세를 달성한 후 전격적 군사행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X국 해군의 작전수행은 ‘정보전-해양우세-결정적 해상작전-협상지원’ 순으로 전개될 것이다. 우선 X국 해군은 정보전을 통해 자국의 C4ISR체계를 보호하고 한국군의 C4ISR체계를 와해시켜 정보우세를 달성하려 할 것이다. X국 해군은 상급부대 및 공군으로부터 사이버전자전 지원을 받아 분쟁지역의 한국해군 함정과 이를 지휘하는 함대사령부의 지휘통제 및 통신체계를 공격할 수 있다. 정보전이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면 한국 공군과 해군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적시적인 전력 투입과 대응이 어렵게 될 것이다.

정보전 공격과 동시에 X국 해군은 공군의 지원 하에 분쟁해역에서 해양우세를 달성하려 할 것이다. 우선 X국 공군은 비록 도서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분쟁해역 인근에 전개하여 한국 공군 및 해군의 접근을 저지할 것이다. X국 해군은 항모와 대형 함정에 탑재한 대공대함미사일 및 방공체계를 가동하여 한국 공군과 해군의 접근을 위협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X국 해군은 분쟁해역에 한국 해군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압도적인 전력을 투입하여 수적 우세를 달성할 것이며, 이미 투입된 한국 해군 함정을 고립시킬 것이다.

다음으로 X국 해군은 결정적 해상전투에 나설 것이다. 우선 X국 함정은 분쟁해역에서 대치하고 있는 한국 해군 함정에 즉각 X국 수역을 이탈할 것을 경고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함정이 거부할 경우 대함미사일로 타격하여 격파할 것이다. 이 때 X국 해군은 자국 함정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국 함정을 상대로 파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강력한 전자전 공격과 함께 다량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여 타격할 것이다. 한국 함정이 파괴되고 현장을 이탈하면 X국 함정은 분쟁도서에 병력을 상륙시켜 한국이 설치한 구조물을 훼손하고 자국 국기를 게양할 것이다.

이후 X국 해군은 분쟁도서를 점거하여 자국 정부의 협상을 지원할 것이다. X국 정부는 결정적인 승리를 바탕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한국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이며, 도서분쟁 및 중간선 설정 문제와 관련하여 자국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 2) 한국 해군의 해상작전 수행 개념

한국 해군의 작전목표는 X국 해군과의 교전에서 승리하여 X국 해군의 도서점령을 저지하는 것이며, 비록 X국 해군과의 교전에서 패배하더라도 X국 해군이 도서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분쟁도서에 대한 X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인하고 한국의 주권을 수호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 해군은 '정보전-해양거부-교전 및 도서점령 거부-협상' 순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먼저 한국 해군의 정보전은 공격보다 방어에 치중할 것이다. 분쟁해역에서 양국 해군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X국 해군은 강력한 사이버-전자전 공격에 나설 것이며, 한국 해군 함대사 및 함정은 이러한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C4ISR 체계를 복구하거나 대체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할 것이다. 이후 한국 해군은 X국 해군 및 함정을 상대로 사이버·전자전 공격에 나설 수 있지만, 그러한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 해군은 X국 해군이 분쟁해역에서 우세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거부하기 위해 적어도 X국 해군 함정 수에 준하는 전력을 분쟁해역에 투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분쟁해역을 담당하는 지역함대 외에 추가로 건설된 기동함대 전력을 전개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X국 해군은 공군과 항모전력, 잠수함, 대공 및 대함 미사일 전력을 백업세력으로 하여 한국 해군의 추가 투입을 저지할 것이며, 한국 해군이 전개하는 함정 수를 압도하기 위해 자국 함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것이다. 결국 한국 해군은 함정 수에서 X국 해군에 뒤질 것이며, X국의 해양우세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해상전투가 시작되면 한국 해군은 X국 해군과 교전하고 도서 점령을 거부해야 한다. 이 때 교전은 한국이 아닌 X국의 공격으로 시작된다. 한국 해군은 선제공격이 불가하며 X국 해군의 공격이 이루어지면 이를 방어한 직후 반격에 나서야 한다. 한국 해군은 교전에 대비하여 ① 분쟁해역 저지세력, ② 원거리에 위치한 해공군 백업세력, ③ 지상에 배치된 대함미사일 등으로 축차적인 화력을 배치하여 대응할 것이다. 분쟁해역 저지세력은 현장에서 교전을 치르며 X국 함대의 분쟁도서 접근을 거부하는 전력이다. 원거리 백업세력은 분쟁해역에서 50-100km 이격된 지역에서 교전이 확대되거나 X국 함대가 도서를 점령하는 단계에서 타격할 수 있는 예비전력이지만, 실제로 분쟁의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상 대함 미사일은 분쟁해역의 X국 해군 함정을 위협할 수 있으나 확전의 우려를 고려하여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협상은 교전의 결과에 따라 입지를 달리할 것이다. 만일 한국 해군이 X국 해군과의 교전에서 승리하거나 비록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면 한국 정부는 X국 정부에 영유권 수호의 단호한 의지를 과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한국 해군이 패한다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 4. 비대칭성 분석: 강약점 분석

앞에서 분석한 유무형 군사력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비대칭성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사이버·전자전 영역에서의 비대칭성이다. X국과 한국은 C4I 능력이나 ISR 능력 면에서 대등하다. ISR의 경우 X국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나 분쟁해역에 대한 감시 및 정찰능력에 있어서는 한국군과 큰 차이 없다. 그러나 X국은 사이버 및 전자전 영역에서 한국군의 능력을 크게 압도한다. 그리고 이는 실전에서 한국군의 C4ISR 능력을 교란, 마비, 와해, 파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일 X국의 사이버·전자전 공격으로 한국 해군 함정과 함정 간, 그리고 함정과 함대사 간의 지휘통제체계가 마비되고 전술데이터링크가 교란된다면, X국 해군은 쉽게 해양우세를 달성하고 일방적으로 한국 해군 함정을 격파할 수 있다.

둘째, 해상전력에서의 비대칭성이다. X국과 한국 해군 함정의 1척당 전투력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구축함의 경우 대공화력은 대등하나 대함화력은 X국이 4:1로 우세하다. 호위함의 경우 대함화력은 대등하나 대공화력은 X국이 4:3으로 우세하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X국이 분쟁해역에서 우세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해군보다 더 많은 전력을 투입하면서 증폭된다. 만일 한국 해군이 구축함 1척과 호위함 2척을 분쟁해역에 투입한다면 X국 해군은 구축함 2척과 호위함 4척을 분쟁해역에 투입하여 적어도 2배의 수적 우위를 달성할 것이다.

이 경우 X국 해군과 한국 해군의 전력비는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X국 함정 6척과 한국 함정 3척이 보유한 화력 가운데 대공 및 대함미사일의 전력비를 보면, 우선 대공전력은 X국 함정이 240발, 한국 함정이 85발로 X국 해군이 2.8배 우세하다. 대함전력은 X국 함정이 96발, 한국 함정이 24발로 X국 해군이 4배 우세하게 된다. 그러나 양국의 전력비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기에 X국이 사이버·전자전 공격으로 한국 함대사 및 함정의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경우 약 20% 이상의 전력승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가정하면 X국의 전력은 한국에 비해 대공전력 3.5배, 대함전력은 5배 이상의 우세를 달성하게 된다. 결국 X국 해군은 분쟁해역에서 한국 해군을 상대로 해양우세 달성할 수 있다.

셋째, 선제타격에 의한 비대칭성이다. X국은 적극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화력을 운용할 것이며, 자국 함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화력타격에 나설 것이다. 한국 함정이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의 수를 판단하고, 그 이상으로 많은 대함미사일을 동시에 타격하여 한국 함정을 격파할 것이다. 반면, 한국은 소극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세적으로 화력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타격하지 못하고 X국의 함정이 먼저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 적의 미사일이 비행하는 동안 혹은 적 미사일을 방어한 후에 반격이 가능하다는 제한사항이 따른다.

결국 X국 함정은 선제타격의 우위를 점유할 수 있다. 물론, 한국 함정은 자율화된 방어체계를 도입하여 적 미사일 발사 직후 미사일이 비행하는 동안 자동으로 적 함정을 공격하여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한국 함정은 X국 함정 모두를 대상으로 각각에 대한 동시 타격을 가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미사일을 발사한 함정에 공격이 집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효율성은 보장할 수 없다. 한국 함정은 모든 함정이 동시에 공격을 받는 반면, X국 함정은 일부 함정만 공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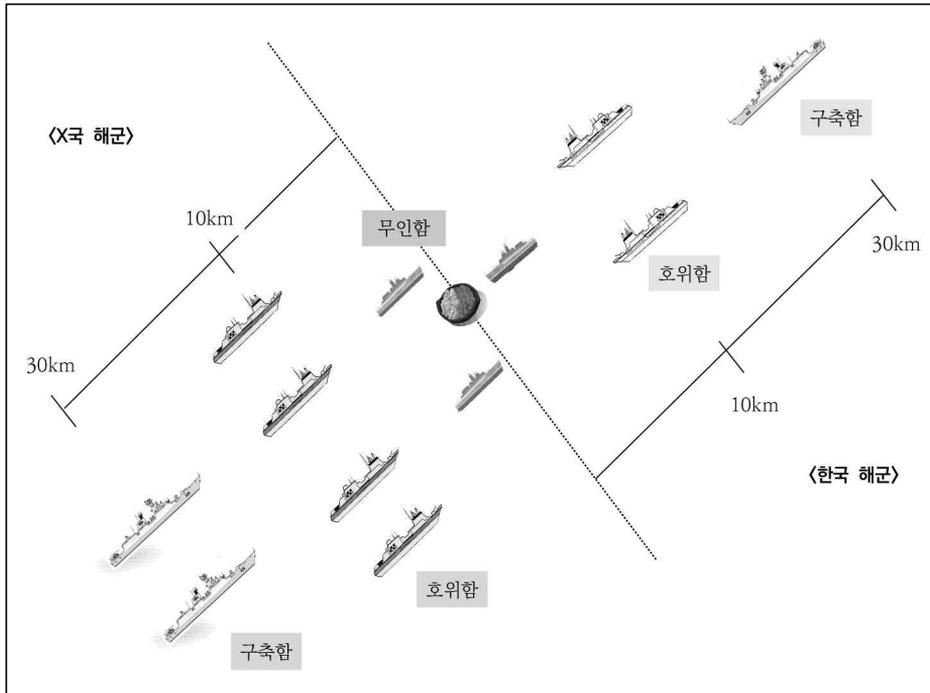
## 5. 시나리오 분석

### 1) 분쟁해역 군사적 대치상황 조성

X국은 분쟁도서 강점을 위해 의도적으로 분쟁해역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을 조성할 것이다. 우선 민간어선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해경함정을 분쟁해역에 투입하여 한국 정부를 자극할 것이다. X국 해경함정은 배수톤수 3,000-4,000톤에 함포로 무장하고 있으므로, 한국정부는 해군의 3,000톤급 초계함 1척을 투입하여 대응하도록 할 것이다. X국은 한국 해군 함정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어선과 해경을 철수시키고 3,000톤급 호위함 2척을 투입할 것이며, 한국은 초계함을 철수시키고 호위함을 2척을 투입할 것이다. 양측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X국은 호위함 2척을 추가로 투입하고 무인함 2척과 구축함 2척을 추가로 투입할 것이며, 한국도 무인함정 1척과 구축함 1척을 추가로 투입하여 대치할 것이다.

이로써 X국 해군 함정과 한국 해군 함정은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대치할 것이다. 호위함은 상대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도서로부터 10km 후방에 위치하고, 분쟁해역에서는 무인함정이 대치할 것이다. 구축함은 미사일방어체계의 최단거리 유효사거리를 고려하여 약 30km 후방에서 호위함을 지원할 것이다. 이 외에도 X국 해군과 한국 해군의 구축함, 잠수함, 공군전력이 백업세력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이들은 군사적 충돌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 직접 교전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림 2〉 X군 해군과 한국 해군 함정 대치 상황



## 2) X국의 도발과 교전 결과 예측

X국의 최초 도발은 무인함정을 이용한 공격에서 시작될 것이다. X국 구축함 지휘관은 한국 해군 함정에 X국의 영유권 내에 불법으로 진입했음을 지적하고, 해역에서 즉시 이탈하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할 것이다. 한국 해군은 반대로 X국 해군에게 해역에서 이탈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X국 무인함정 2척은 경고 차원에서 한국 무인함정 주변을 선회한 후, 함포로 한국 해군 무인함정을 공격하여 파괴할 것이다. 한국 해군 호위함은 무인함정이 공격을 받은 즉시 X국 무인함정 2척에 함포사격을 실시하여 파괴할 것이다.

한국 호위함이 X국 무인함정을 공격하면 X국 함정은 본격적으로 도발에 나설 것이다. X국 해군은 한국 함정을 공격하기 전에 전자전 공격을 가할 것이다. X국 구축함과 호위함은 HPM 공격을 실시하여 한국 함정과 함정, 그리고 함정과 함대사

간 지휘통제 및 통신체계를 마비시킬 것이다. 이와 동시에 X국 전자전기와 무인전자전기는 한국 해군 함대사의 C4ISR 체계를 겨냥하여 전자전 공격을 실시할 것이다. X국은 평시 한반도 주변에서 전자정찰을 실시하며 획득한 한국해군 함정의 통신 및 무기체계의 주파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전자공격을 수행할 것이다.

X국의 전자전 공격으로 한국 함정의 통신은 간헐적으로 두절되고 레이더체계는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만일 X국의 전자전 공격으로 C4ISR 체계가 마비된다면 한국 함정은 적 미사일 공격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파괴되어 군사분쟁 상황은 곧바로 종료될 것이다. 다만, 한국 함정은 최신형으로 개선된 전자방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시 X국의 전자정보 수집 활동에 대응하여 다중의 허위 레이더 신호를 발신함으로써 X국의 전자전 공격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X국의 전자전 공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한국 함정의 미사일 방어 및 공격 능력은 약 20%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X국 구축함 및 호위함은 전자전 공격과 함께 한국 함정에 미사일 공격을 실시할 것이다. X국 구축함과 호위함의 미사일 공격 능력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X국 구축함에서 한국 구축함까지 60km 미사일 비행 시간은 300초, 즉 5분이 소요되며, X국 호위함에서 한국 호위함까지 20km 미사일 비행 시간은 64초, 즉 1분이 소요된다. 한국 함정은 이 시간 동안 X국 함정이 발사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

〈표 3〉 X국 함정의 미사일 공격 능력

구분	대함미사일	사거리	속도	1척 보유량	전체 보유량
XDD-Ⅲ	YJ-18A	500km	마하0.8(270m/s)	32발	64발
XDD-Ⅱ	YJ-83	180km	마하0.9(310m/s)	8발	32발

한국 함정의 미사일 방어능력은 다음과 같다. 한국 함정이 보유한 대공미사일의 요격률은 80%이나 X국의 전자공격으로 20%가 다운된 것을 고려하여 64%로 조정해야 한다. 이 때 구축함 KDD-Ⅱ의 SM-2 미사일 32발은 20발의 미사일을 격추 가능하며, RAM은 13발의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다. CIWS는 3km 이내에서 2발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한다. 총 35발을 요격할 수 있다. 호위함 KDD-Ⅰ은

시스패로가 10발, CIWS 2대가 적 미사일을 각각 2발씩 4발을 격추시키므로 총 14발을 요격할 수 있다.

〈표 4〉 한국 함정의 미사일 방어 능력

구분	대공미사일	사거리	1척 보유량	전체 보유량
KDD- II	SM-2	167km	32	32
	RAM	10km	21	21
	CIWS	3km	1	1
KDD- I	시스패로	19km	16	32
	CIWS	3km	2	4

X국 함정이 한국 구축함 1척 및 호위함 2척을 모두 격파하기 위해서는 69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하여 거의 동시에 표적이 탄착되도록 해야 한다. 우선 1척의 구축함을 파괴하는 데에는 37발의 미사일이 필요하다. 37발 가운데 35발이 요격되면, 나머지 2발로 구축함을 타격할 수 있다. 또한 2척의 호위함을 파괴하는 데에는 32발의 미사일이 소요된다. 32발 가운데 28발은 한국 호위함 미사일 방어에 의해 요격되고 남은 4발로 호위함 2척을 각각 2발씩 타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분쟁해역에 전개한 X국 해군 함정은 총 96발의 대함미사일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해군 함정을 모두 격파할 수 있다.

한국 함정은 X국 함정의 미사일 공격에 즉각 대응할 것이다. 한국 함정은 X국 함정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혹은 미사일이 비행하는 동안 X국 구축함과 호위함을 상대로 대함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한국 함정이 보유한 미사일 공격 능력은 다음과 같다.

〈표 5〉 한국 함정의 미사일 공격 능력

구분	대함미사일	사거리	속도	1척 보유량	전체 보유량
KDD- II	하푼	140km	마하0.85(290m/s)	8발	8발
KDD- I	하푼	140km	마하0.85(290m/s)	8발	16발

X국 함정의 미사일 방어능력은 다음과 같다. X국 함정의 대공미사일 요격률을 80%로 가정하면, 호위함 XDD-II 1척이 보유한 대공미사일 32발은 25발의 미사일을 요격 가능하며, CIWS는 2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따라서 호위함 1척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29발, 4척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116발이 필요하다.

〈표 6〉 X국 함정의 미사일 방어 능력

구분	대공미사일	사거리	1척 보유량	전체 보유량
XDD-III	HHQ-9B	200km	32	64
	HHQ-10	10km	24	48
	CIWS	3km	1	2
XDD-II	HHQ-16	70km	32	128
	CIWS	3km	1	4

그러나 한국 해군이 보유한 대함미사일은 24발에 불과하여 X국 호위함 1척도 파괴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분쟁해역에 투입된 한국 해군 함정은 X국 미사일 공격에 의해 모두 격파될 것이다.

### 3) X국 함정의 해상기동 및 도서 점령

X국 해군은 한국 함정을 격파한 후 분쟁도서를 점령하기 위해 기동할 것이다. X국 해군 해병대는 공기부양정에 탑승하여 호위함의 엄호 하에 분쟁도서에 상륙한 다음 한국이 설치한 구조물을 파괴하고 X국 국기를 게양할 것이다. 이 때 한국 해군은 마지막으로 X국의 기동을 저지하여 분쟁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수호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한국 해군은 백업전력으로 대기하던 구축함 및 호위함으로 하여금 도서 인근해역에 함포와 미사일 사격을 가하여 X국 해병대의 접근을 방해할 수 있으며, 해병대가 도서에 상륙을 시도하거나 상륙할 경우 직접 타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X국 해군은 마찬가지로 한국 해군 구축함 및 호위함을 상대로 미사일 공격을 가할 것이며, 분쟁은 한반도 내륙 및 X국 해안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미 X국 해군의 전격적인 화력타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한국으로서는 X국의 함모, 공군, 미사일 전력이 무력을 시위하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를 우려하여 X국 해병대의 도서 점령을 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국제여론의 동정을 얻고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미국의 개입을 유도하기 위해, 그리고 이후 X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도서에 상륙하는 X국 육전대를 공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전의 결과는 해군력이 우세한 X국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다.

## 6. 소결론

이와 같은 총괄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한국군의 사이버·전자전 능력은 X국에 비해 크게 열세하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X국의 사이버·전자전 공격으로 한국 해군의 미사일방어 및 공격력이 약 20% 약화될 것으로 가정했으나, 해군 교전이 짧은 순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50%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해군의 군사적 열세는 더욱 커진다. 무엇보다도 한국 해군은 적 C4ISR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공격력이 미흡하여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군의 사이버·전자전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한된 군사분쟁에서는 개별 무기체계의 능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X국이 도발하기 전에 수적 우세를 달성한다고 가정할 때 X국 함정에 대한 한국 함정의 전력 열세는 증폭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구축함의 대공능력과 호위함의 대함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척 당 가진 대공 및 대함 능력이 우세할 때 수적 열세로 인한 화력의 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셋째, 대공 및 대함 미사일 교전에 대비해야 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보는 것처럼 향후 국지적 교전은 미사일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방어하는 입장에 적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교전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과업이 될 것이다. 해군은 적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체계로 함대공미사일에 더하여 적 대함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무기 또는 레이저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 함정 레이더 및 대공방어체계를 뚫을 수 있는 미사일 혹은 공격용 드론 등의 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X국의 기습적인 공격에 의해 야기되는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교리 및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적의 공격이 임박할 경우 선제적으로 공격할 것인지, 적 공격이 시작됨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반격에 나설 수 있는지, 그리고 적 공격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복타격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대비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미국의 개입을 공약화하여 X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전략, 나아가 분쟁 발발시 제한적 군사대응 외에 확대된 군사대응을 감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전략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함의는 이 연구가 일종의 샘플을 가지고 단순하게 분석한 만큼 예시 수준에서 제시한 것이다. 본격적으로 총괄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하고 데이터를 반영하여 훨씬 풍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냉전이 종식되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군사력이 국가안보 및 전략적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하드파워’에 대비되는 ‘소프트 파워’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력은 변함없이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요소로 남아 있다. 한반도 주변 상황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북한과 주변국은 변하지 않았다. 이들은 여전히 “권력이란 가장 우선적으로 고전적인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Elefteriu 2018, 22). 북한의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중국의 세계일류 군대 육성,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 회복 등은 모두가 강한 군사력을 건설하여 이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우리의 국방기획은 통상적으로 당면한 주변 정세를 판단하여 적 위협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적극적인 전략적 목적을 추구하지 못하고 현상유지 수준에서 수세적으로 머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의 단편적인 ‘위험관리’에 주안을 둬으로써 미래 안보구도를 위협할 수 있는 파장이 큰 위협을 예측하지

못할 수 있다. 그 결과 특정한 위협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추구하지 못함으로써 20-30년 후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Elefteriu 2018, 18). 그래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총괄평가를 도입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국가안보와 국방이 당장 1~2년 후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20~30년 후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하는 것이라면 북한 및 주변국과의 군사력 균형을 평가하고 문제를 식별하여 장기적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정보화 전쟁이 지능화 전쟁으로 진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보다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앤드류 마샬이 언급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경쟁은 기술 경쟁이 아니다. 물론 누구든 가질 수 있다면 더 뛰어난 기술을 갖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가용한 기술 또는 수십 년 후에 가용한 기술을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의 혁신과 조직 변화를 선도하고 최고가 되는 것이다(Marshall 1993, 2).” 총괄평가는 우리가 은연중에 갖고 있는 ‘기술 만능주의’ 또는 무기 중심의 국방기획에서 벗어나 전략적 사고의 지평을 넓히고 효율적인 국방기획을 가능케 하는 ‘지적 무기’가 될 것이다.

투 고 일: 2020. 10. 16.

심사완료일: 2020. 11. 11.

계 재 일: 2020. 11. 30.

## 참고문헌

- 김태현. 2020. “군사력 균형 평가 도구로서 ‘총괄평가(Net Assessment)’: 개념, 절차, 방법론.” 『국방정책연구』. 36:1. 봄.
- 앤드루 크레피네비치베리 와츠. 2019. 이동훈 역. 『제국의 전략가』. 파주: 살림.
- Augier, Mie, 2013. “Thinking about War and Peace: Andrew Marshall and the Early Development of the Intellectual Foundations for Net Assessment.” *Comparative Strategy*. 32:1.
- Bracken, Paul. 2006. “Net Assessment: A Practical Guide.” *Parameters*. Spring.
- Cohen, Eliot A. 1990. “Net Assessment: An American Approach.” Jaffee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pril.
- Cohen, Eliot A. 1988. “Toward Better Net Assessment: Rethinking the European Conventional Balance.” *International Security*. 13: 1. Summer.
- DoD Directive 5111.11, 2020. Director of Net Assessment. April 14.
- Elefteriu, Gabriel. 2018. “A Question of Power: Towards Better UK Strategy Through Net Assessment.” *Policy Exchange*.
- IISS. 2020. *The Military Balance 2020*. London: Routledge.
-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1990. *Net Assessment: The Concept, Its Development and Its Future*. Alexandria: IDA.
- Manea, Octavian. 2014. “The Art of Tailoring Competitive Strategies.” *Small Wars Journal*. April 23.
- Marshall, Andrew W. 1966. “Problems of Estimating Military Power.” *RAND*, August.
- Marshall, Andrew W. 2009. “Ad Hoc Committee Report to the NSCIC in Response to NSSM 178.” Memorandum, 15 May 1973. Washington D.C: The 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
- Murray, Williamson and Barry Watts. 1990. “Guidance Essay.” Allen R. Millet and Williamson Murray. eds. *Net Assessment in the 1930s*. DoD DTIC.
- Pickett, George, James Roche, and Barry Watts. 1991. “Net Assessment: A Historical Review.” Andrew W. Marshall et al. eds. *On Not Confusing Ourselves: Essays*

*on National Security Strategy*. Boulder: Westview Press

Roche, James G. and Thomas G. Mahnken. 2020. "What is Net Assessment?" Thomas G. Mahnken. ed. *Net Assessment and Military Strategy: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Essays*. New York, Cambria Press.

Rosen, Stephen Peter. 1991. "Net Assessment as an Analytical Concept." Andrew W. Marshall et al. eds. *On Not Confusing Ourselves: Essays on National Security Strategy*. Boulder: Westview Press.

Skypek, Thomas M. 2010. "Evaluating Military Balances Through the Lens of Net Assessment: History and Application." *Journal of Military and Strategy Studies*. 12: 2. Winter.

Watts, Barry. 2017. *Analytic Criteria for Judgments, Decisions, and Assessments*. CSBA.

## Net Assessment: Concept, Methodology and Application to Sample Case

Changhee Park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oncept and methodology of ‘net assessment’ and applies it to a sample case for improving our understanding. Net assessment can simply be defined as evaluation of military balance between opposing countries or parties. Through comparing military capabilities, we can acknowledge where we stand in the long-term competition with our competitor. That is, we can identify whether we are strong or weak in the balance, and, if we are strong, what our strengths and opponents weaknesses are, and also, if we are weak, what our weaknesses and opponent’s strengths are. These are the strategic asymmetries where we can exploit areas of opportunity in the long run, while taking early action to mitigate our vulnerabilities. Still, we are not accustomed to the concept of net assessment and its methodology. Net assessment, however, is the logical process of thinking that should be preceded before the planning of national defense. If we consider that neighboring countries could be a threat in the future, we should carefully look at what kind of threat it would be, what is the problem, whether we can dominate the threat or not, how we can overcome such threat if we are weak in the future. Net assessment will provide insights to our strategic thinking and force building, and enable innovative development of our defense planning.

**Keywords:** Net Assessment, Military Balance, Strategic Asymmetries, Competitive Strategy, Strategic Thinking